

정서·행동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인식 분석

구미향*

초 록

정서 또는 행동상의 문제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 45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유형화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소 표본이론에 근거한 주관성 연구법인 Q방법론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대상자를 개별 면담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정서·행동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유형 3개를 확인하였다. 각 유형별 특성에 따라 제 1유형은 혼자만의 자유 추구 형, 제 2유형은 삶의 목표와 방향 상실 형, 그리고 제 3유형은 정서적 지지와 안정 추구 형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각 유형에 적합한 상담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주제어 : 정서·행동문제, 스트레스, Q-방법론

*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I. 서론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격렬하고 정서적으로 거친 시기라고 여겨진다. 아동기가 성인들의 감독을 받는 가상의 시기(period of make believe)였다면, 청소년기는 처음으로 실제적인 것에 직면하는 시기인데, 정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 많은 것을 처음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의 홍수에 빠질 수 있다(Janna & Michael, 1995).

개인이 직면하는 환경의 변화에 정상적인 적응반응을 보이지 못하거나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게 될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홍상옥, 엄경순, 배옥현, 2003).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학교생활, 자신에 관한 문제, 환경문제, 가정문제, 대인관계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김향림, 2000; 정휘, 2000). 홍석은(2002)의 연구결과, 전체적으로 한국의 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입시”와 이로 인해 결정되는 “장래”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위주의 사회제도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래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모와의 갈등도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달시키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우정은 청소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Janna & Michael, 1995). 김미례(2002)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전체요인 중 친구의 배신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우정관계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에 있어 남녀간에 성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학업, 시간, 구조화된 학교활동, 집안일, 진로와 건강 등의 영역에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례, 2002; 윤소미, 2002; 홍석은, 2002; Jones, 1992; Susan, Linda, & Douglas, 1996). 이러한 결과에 대해 윤소미(2002)는 시험의 성패가 청소년의 우울증을 중재하는 변인임을 밝히면

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부정적인 일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을 갖기 때문에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여자 청소년이 사회적 통제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는 또 다른 이유로 여겨진다(Susan, Linda, & Douglas, 1996).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과 행동문제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에게서 더 많은 행동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김수주, 2001).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들을 평가한 결과 주의집중결여, 기억장애, 좌절감, 우울, 불안, 대인예민성, 적대감, 정신증 등과 같은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신체적 건강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향림, 2000; 한상철, 이수연, 2003; Mailandt, 1998). 또한 각종 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가출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가출이후 심각한 우울증상을 경험하면서 약물이나 알콜남용과 더불어 자살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한상철, 이수연, 2003).

이와 같이 스트레스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이나 행동문제가 극단적으로 청소년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스트레스의 원천을 확인하고 스트레스의 해로운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Jones, 1992). 특히 정서 또는 행동상의 문제로 인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상담기관에 의뢰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이는 행동문제가 심각한 반사회적 일탈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과정에 다양한 스트레스원이 매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많은 연구들은 정서·행동상의 문제가 있는 고 위험 청소년 집단을 일반청소년들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정서·행동상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유형 및 특성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부모나 상담자 혹은 교사들을 자발적으로 자신의 문제해결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동기가 매우 낮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학적 개입전략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신현숙, 구본용, 2001; 한상철, 이수연, 2003).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서 청소년들은 운동이나 여가활동과 같은 긍정적인 대처행동보다는 자기비난, 문제와 감정의 은폐, 문제 무시 등과 같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대처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 청소년 상담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걸림돌이다(신현숙, 구본용, 2001).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미 정서 또는 행동상의 문제로 인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부적응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유형과 특성을 알아보는 것은 그들을 위한 상담전략을 수립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의 경우, 행동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선별하고 스트레스의 유형별 상담을 통해 보다 심각한 장애로 진행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전문상담교사의 조기중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 또는 행동상의 문제로 인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 표본(small sample)이론에 근거한 Q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Q 방법론은 William Stephenson에 의해 창안되어 개인의 감정이나 사고, 신념 등의 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통계모형으로서,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에 따라 형성되는 독특한 유형(Q-factor)별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인간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김홍규, 199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Q 방법론의 원리에 입각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청소년들의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고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정서·행동상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유형은 어떠한가?
2. 정서·행동상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Q-sample

Q-sample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의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Q-sample을 완성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에 관한 전문서적과 뉴스보도자료 등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조사를 실시하여 스트레스 목록을 작성한 연구자들(김미례, 2002; 김수주, 2001; 김용래, 이혜원, 1995; 정휘, 2000)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또한 정서행동문제로 임상기관에 의뢰된 청소년 3인과, 학교생활지도교사 5인을 심층 면담하여 총 259문항의 스트레스 전집(Q-population)을 완성하였다. 전집으로부터 학교, 가정, 친구, 이성교제, 종교, 외모와 성격, 장래, 건강, 환경 등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경험하는 42개의 대표적인 스트레스 항목들을 추출하였다.

2. P-sample

P-sample을 선정하기 위해 현재 교육대학원에서 4학기 이상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있는 현직 교사에게 정서 또는 행동상의 문제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총 45명의 청소년이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현재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남자 21명, 여자 24명이었다. P-sample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요인가중치는 (표 1)과 같다.

〈표 1〉 P-sample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요인가중치

유형	ID	요인가중치	연령	성별	출생순위
1 (N=20)	18	1.71	14	남자	첫째
	32	1.34	14	여자	첫째
	30	1.27	16	남자	셋째
	29	1.23	17	남자	둘째
	27	1.22	18	남자	둘째
	38	1.17	16	여자	첫째
	28	1.03	15	여자	첫째
	44	.91	14	여자	둘째
	43	.86	15	여자	첫째
	26	.83	17	남자	첫째
	36	.82	13	남자	첫째
	11	.81	13	여자	첫째
	16	.76	18	여자	둘째
	15	.66	14	남자	셋째
	04	.65	17	여자	둘째
	35	.51	16	남자	셋째
	33	.48	15	여자	첫째
	37	.47	14	여자	첫째
	02	.44	17	남자	둘째
	42	.44	12	남자	첫째

유형	ID	요인가중치	연령	성별	출생순위
2 (N=13)	17	2.06	17	남자	둘째
	22	1.48	15	여자	둘째
	39	1.43	16	여자	첫째
	24	.80	13	남자	첫째
	09	.62	18	남자	둘째
	05	.59	18	여자	첫째
	14	.51	14	여자	셋째
	13	.46	19	남자	둘째
	34	.40	16	남자	둘째
	25	.34	17	남자	둘째
	23	.34	15	남자	첫째
	31	.30	16	남자	첫째
	12	.15	13	여자	첫째
3 (N=12)	03	.91	17	여자	첫째
	45	.83	13	여자	둘째
	06	.78	17	여자	첫째
	10	.70	17	여자	둘째
	20	.64	17	여자	첫째
	19	.63	16	여자	첫째
	07	.61	14	남자	셋째
	08	.51	14	여자	둘째
	21	.47	15	여자	셋째
	41	.39	14	남자	둘째
	40	.33	16	여자	셋째
	01	.26	16	남자	셋째

3. Q-sorting

Q-sample의 각 문항을 카드의 형식으로 제작하여 P-sample로 하여금 미리 정해진 매수대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P-sample은 자신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1점에서 9점까지 의사정상분포(Quasi Normal Distribution)형태로 카드를 분류하였다. 카드의 분류가 끝난 후 양끝의 5매의 카드에 대해 진술문에 대한 P-sample의 주관적 의견을 면담을 통해 듣고 기록하였다.

〈표 2〉 Q-sort 분포의 모양

점수	1	2	3	5	5	6	7	8	9
카드의 수	2	3	5	7	8	7	5	3	2

4. 자료의 처리

수집된 자료에 대해 Q-sample의 각 문항별로 1점~9점까지 해당 점수를 부여하고 문항 순서대로 코딩하여 QUANL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였다. 고유치 1.00을 기준으로 주요인분석과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을 실시하여 요인 분석하였다. 또한 요인간의 상관을 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의 해석

Q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유형(Q-factor)이 발견되었는데, 이들

은 Q-sample을 비슷한 방법으로 분류한 P-sample의 조합으로서 각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은 비슷한 의견이나 생각, 태도 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김홍규, 1990). 각 유형별 Eigenvalue는 제 1유형이 12.33, 제 2유형이 2.60, 제 3유형이 2.03이었고, 세 요인의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38%였다. 각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형 간 상관계수의 범위는 .50~.57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각 유형의 Q-array에서 표준점수(z-score)가 ± 1.00 이상인 항목에 주목하면서 각 유형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면담자료와 인구학적 변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른 유형과의 차이점과 유사점, 타 유형과 비교하여 긍정적, 부정적 동의를 보이는 문항들을 분석함으로써 유형이 갖는 독특한 특성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김홍규, 1990).

〈표 3〉 각 유형간의 상관

	1 유형	2 유형	3 유형
1 유형	1.00		
2 유형	.57	1.00	
3 유형	.56	.50	1.00

1. 제 1유형 : 혼자만의 자유추구 형

제 1유형은 나름대로의 꿈과 삶의 목표가 있다. 그러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미래의 계획이 타인에 의해 간섭받거나 제한당할 때 거부감을 느끼며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이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은 자신의 인격과 의지를 침해당하는 상황인데, “부모님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놀거나 잠자는 것을 제한당할 때”, “부모님과 선생님의 간섭을 받는 것”, “선생님이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등이다. 이들은 “나도 생각이 있고”, “학생도 사람이며”, “내 꿈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열심히 살고 싶다”고 항변한다.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제 1유형은 자의식이 강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 자신의 성격이나 외모에 대한 큰 불만이 없고 설사 능력이나 재능이 부족하다고 느껴도 이 때문에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은 수정하거나 다른 부분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믿고,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으로 받아들인다.

제 1유형은 자신이 속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지각한다. 비록 외견상 가정불화나 경제적 곤란을 경험하지 않지만, 한편으로 이들은 “부모님과 대화는 되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대화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의 생활을 살펴보면 친구로 인해 괴로움을 겪는 일이 없고 교우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역시 한편으로는 “힘들 때 곁에 있어줄 이성친구”와 “믿고 의지할 만한 친구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응답함으로써 가정이나 학교에서 심리적인 지지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에 대한 고민과 관련하여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 있는 청소년들은 “억지로 공부해야 하는 것”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그러나 제 1유형에 속하는 대다수는 “학업자체에 별 흥미가 없고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제 1유형은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배려가 부족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자유시간이나 취미생활을 할 수 없고”, “시간활용을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 그리고 “부모나 교사의 차별과 대학중시 풍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4〉 제 1유형에서 긍정적·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

Q-sample	z점수
제 1유형에서 긍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	
08. 내 적성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1.79
06. 나만의 자유시간을 누렸으면 좋겠다.	1.78
22.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공간이 있어야 한다.	1.36
03.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만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1.36
21. 충분히 잠을 자고 몸이 가뻔했으면 좋겠다.	1.29
12.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고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	1.20
26. 내 성격의 좋지 않은 부분을 고치고 싶다.	1.15
34. 대학 안나온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은 사회분위기가 싫다.	1.02
40. 선생님이 모든 학생을 공평하게 대하셨으면 좋겠다.	1.01
제 1유형에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	
27. 요즘 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적 욕구가 많아졌다.	-1.05
18. 갑작스런 사춘기 신체변화로 당황스럽다.	-1.10
11. 화재, 교통사고, 건물붕괴, 가스폭발 등 각종사고가 빈번해서 불안하다.	-1.17
15.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괴롭다.	-1.32
04.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곤란한 신체적 결함이 있다.	-1.43
13. 부모님의 문제(불화, 이혼, 별거 등)로 집안이 편하지 못하다.	-1.48
25. 친구나 선배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한다.	-1.61
39. 집안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져(퇴직,사업실패,빚 등) 여러 면에서 힘들다.	-1.63
14. 친구들로부터 바보취급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해서 속상하다.	-1.71

〈표 5〉 타 유형에 비해 제 1유형에서 긍정적·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

Q-sample	Z 점수	평균 Z 점수	차이
제 1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긍정적으로 동의한 항목			
22.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공간이 있어야 한다.	1.36	-0.06	1.43
42. 교내생활에 대한 학교규정이 너무 엄격하고 강제적이어서 거부감이 든다.	0.37	-0.85	1.22
제 1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부정적으로 동의한 항목			
13. 부모님의 문제(불화, 이혼, 별거)로 집안이 편하지 못하다.	-1.48	-0.48	-1.00
30.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좋지 않아 괴롭다.	-0.78	0.90	-1.69
39. 집안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여러 면에서 힘들다.	-1.64	0.39	-2.02
4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나 재능이 부족한 것 같아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있다.	-0.85	1.18	-2.03

2. 제 2유형 : 삶의 목표와 방향 상실 형

제 2유형은 자기 확신과 자신감의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느낀다. 자신은 “남보다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고”, “머리가 나쁘고”, “성격이나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점이 많다”고 스스로를 비하한다. 또한 취업을 결정하거나 진로를 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내 적성을 모르겠고”, “앞으로 무엇이 될지”, “졸업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장래의 희망과 삶의 목표가 불분명한 채 불안해한다.

최근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져서 힘든 부분이 있으나,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거의 모든 것을 해 주셨고”, “내가 하는 일에 다 찬성하시니” 가정에서 느끼는 불만은 없다. 학교에서도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없고 교사와의 관계도 원만하다고 지각한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나쁘고”, “공부를 해도 효율적으로 못하는

것 같고”, “앉아 있어도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잠이 와서” 학업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제 2유형은 자신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지각하며 “성에 대한 관심이 나 호기심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혼자서만 좋아하는 여자친구와 깊이 사귀고 싶고”, “모든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또한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나 자신을 믿으면 되니까 종교는 필요 없다”거나, “신앙생활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6〉 제 2유형에서 긍정적·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

Q-sample	z점수
제 2유형에서 긍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	
08. 내 적성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2.09
4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나 재능이 부족한 것 같아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있다.	1.64
33.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앞으로의 삶의 목표가 불분명하다.	1.46
12.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고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	1.44
16. 내 얼굴이나 외모에 불만이 있다.	1.34
30.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좋지 않아 괴롭다.	1.14
28. 내 적성이나 진로 문제를 함께 상담할 사람이 필요하다.	1.11
05. 이 세상에 한사람이라도 내가 의지할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1.11
26. 내 성격의 좋지 않은 부분을 고치고 싶다.	1.02
제 2유형에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	
23.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시거나 발표를 시킬까봐 두렵다.	-1.00
04.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곤란한 신체적 결함이 있다.	-1.06
20. 신앙생활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이 많은 것 같다.	-1.12
27. 요즘 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적 욕구가 많아졌다.	-1.15
10. 예전보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고 신경이 예민해졌다.	-1.16
31.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을 무조건 못하게 하거나 잔소리를 많이 하신다.	-1.17
13. 부모님의 문제(불화, 이혼, 별거 등)로 집안이 편하지 못하다.	-1.30
25. 친구나 선배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한다.	-1.73
09.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싶다.	-1.88

〈표 7〉 타 유형에 비해 제 2유형에서 긍정적·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

Q-표본 항목	Z 점수	평균 Z 점수	차이
제 2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긍정적으로 동의한 항목			
33. 무엇을 위해 살아야할지 앞으로의 삶의 목표가 불분명하다.	1.46	-0.52	1.98
4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나 재능이 부족한 것 같아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있다.	1.64	-0.06	1.70
30.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좋지 않아 괴롭다.	1.14	-0.06	1.19
16. 내 얼굴이나 외모에 불만이 있다.	1.34	0.24	1.10
08. 내 적성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2.09	1.00	1.09
39. 집안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여러 면에서 힘들다.	0.40	-0.63	1.02
제 2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부정적으로 동의한 항목			
31.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을 무조건 못하게 하거나 잔소리를 많이 하신다.	-1.17	-0.09	-1.08
40. 선생님이 모든 학생을 공평하게 대하셨으면 좋겠다.	-0.11	1.02	-1.14
02. 부모님이 나에게 좀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주시면 좋겠다.	-0.83	0.31	-1.14
09.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싶다.	-1.88	-0.15	-1.73

3. 제 3유형 : 정서적 지지와 안정 추구 형

제 3유형은 타인에게 비취지는 자신의 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고, 친구나 부모에게 자신의 부족한 면을 보이게 될까 두려워하며,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질투와 시기심이 생긴다”. 특히 자신의 “성격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비난 받는 것이 싫고”, “성적이 나빠 친구나 부모님께 열등한 면을 보여주게 되어” 기분이 상한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거나 발표를 시킬까봐 두렵고”,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알면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유형은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개인내적인 갈등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디론가 이탈하고 싶은” 심리와 “자유롭고 싶

고”,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는 말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타 유형과 비교하여 정서적인 지지자, 즉 자신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나 진로나 적성에 대해 함께 의논할 대상, 대화할 상대를 필요로 하는 점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족들 간의 대화가 부족”하고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 가정 내에서는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므로 “실수하지 말라고 격려나 조언을 해줄 사람”, “고민이나 걱정을 털어놓을 사람”,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살아가면서 학업보다는 신앙이 중요하다”, “신앙생활을 한 후로 깨달은 것이 있어 삶의 목표가 뚜렷해졌다”, “성당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한편 자신의 문제에 몰입하는 경향 때문에 청소년과 관련한 기타 환경적, 사회적 문제는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태도를 취한다. 예를 들어 “나만 잘하면 되니까” 대학 안나온 사람을 무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자신과 무관하고, “내 주변에서 한번도 이런 일 없어서” 각종 사건과 사고에 관심이 없으며,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

〈표 8〉 제 3유형에서 긍정적·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

Q-sample	z점수
제 3유형에서 긍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	
26. 내 성격의 좋지 않은 부분을 고치고 싶다.	2.36
05.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1.56
12.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고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	1.38
28. 내 적성이나 진로 문제를 함께 상담할 사람이 필요하다.	1.20
06. 나만의 자유시간을 누렸으면 좋겠다.	1.16
40. 선생님이 모든 학생을 공평하게 대하셨으면 좋겠다.	1.04
03.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만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1.02
24.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대화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1.02

제 3유형에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

19. 진로 계획에 있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1.00
27. 요즘 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적 욕구가 많아졌다.	-1.05
42. 교내 생활에 대한 학교규정이 너무 엄격하고 강제적이어서 거부감이 든다.	-1.35
25. 친구나 선배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한다.	-1.50
18. 갑작스런 사춘기 신체변화로 당황스럽다.	-1.59
04.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곤란한 신체적 결함이 있다.	-1.68
14. 친구들로부터 바보취급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해서 속상하다.	-1.85
11. 화재, 교통사고, 건물붕괴, 가스폭발 등 각종 사고가 빈번해서 불안하다.	-1.94
20. 신앙생활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이 많은 것 같다.	-1.96

〈표 9〉 타 유형에 비해 제 3유형에서 긍정적·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

Q-sample	Z 점수	평균 Z 점수	차이
제 3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긍정적으로 동의한 항목			
13. 부모님의 문제로 집안이 편하지 못하다.	0.34	-1.40	1.74
09.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싶다.	0.26	-1.22	1.49
26. 내 성격의 좋지 않은 부분을 고치고 싶다.	2.36	1.09	1.28
31.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을 무조건 못하게 하거나 잔소리를 많이 하신다.	0.40	-0.85	1.21
23.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시거나 발표를 시킬까봐 두렵다.	0.21	-0.94	1.06
제 3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부정적으로 동의한 항목			
33. 무엇을 위해 살아야할지 앞으로의 삶의 목표가 불분명하다.	-0.54	0.49	-1.03
21. 충분히 잠을 자고 몸이 가뿐했으면 좋겠다.	-0.01	1.12	-1.13
42. 교내생활에 대한 학교규정이 너무 엄격하고 강제적이어서 거부감이 든다.	-1.35	0.01	-1.36
34. 대학 안나온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은 사회분위기가 싫다.	-0.59	0.86	-1.45
22.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공간이 있어야한다.	-0.63	0.94	-1.57
08. 내 적성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0.21	1.94	-1.73

IV. 논의 및 결론

상담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들은 현재 자신의 삶과 자신이 도달하고 싶어 하는 이상적인 삶과의 괴리감 때문에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는다. 다양한 상담접근들이 이 둘 간의 균열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지만 그 최종목표는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상담자가 됨으로써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돕는 것에 일치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일상에서 의미와 목표를 찾고 있는지, 일상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탐색한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Lazarus에 의해 개발된 BASIC ID 모델에 포함되는데, 즉 행동, 정서, 감각 또는 학교, 심상, 인지, 대인관계, 약물이나 식이요법과 관련된 갈등으로 상담에 의뢰된다(Thompson & Rudolph, 2000).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정서 또는 행동상의 문제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들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구체적인 영역을 확인하고 상담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3개의 독특한 유형이 발견되었으며, 제 1유형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자신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보완하거나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만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남과 비교되거나 부모나 교사가 간섭하고 제한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느낀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롭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므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나 교사, 교우와 대화하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자신의 의지와 자유가 침해당하는 상황 예를 들어, 엄격하고 강제적인 학교의 규율, 문화시설의 부재로 자유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것, 대학중시의 사회분위기, 교사의 차별

등이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들이었다.

스트레스 원의 유형과 관계없이 회피 대처전략보다 접근 대처전략이 보다 나은 적응을 예견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을 은폐하고 문제를 무시하는 등 스트레스에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신현숙, 구본용, 2001; Griffith & Dubow, 1993). Brain 등(1999)은 청소년들의 일차적인 스트레스 원이 만성적인 대인간 문제와 비사회적 문제에 있음을 밝히면서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이 친구와의 애정적 유대의 질보다 청소년의 건강한 기능에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Black(2002)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는데, 어머니와 대화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는 청소년은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1 유형의 청소년들은 부모와 친구를 포함한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특성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발견되는 관념의 자아중심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욕구는 부모가 따르는 기존의 관습을 버리고 자기방식으로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과잉동화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신을 성인과 동등하게 보며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의 의존적 관계를 나타내는 모든 것에 저항하며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한다(Breger, 1974). 그러나 이와 같이 청소년이 보이는 초기의 과잉동화현상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이 갖는 이상주의와 창조적 사고는 성인의 역할과 인생의 계획을 탐색하도록 돕기 때문에 세상이 자신의 소망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현실과 조화롭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야 한다(Breger, 1974). 한편 1유형의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상당부분은 우리 사회의 교육, 문화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의 복지와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입시위주의 사회제도와 학교교육, 성인위주로 구조화된 문화,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이나 환경의 부재 등으로 발생하는 스트레

스에 대해 학교와 지역사회, 사회제도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신현숙, 구본용, 2001; 홍석은, 2002; Mailandt, 1998; Susan, Linda & Douglas, 1996).

제 2유형은 부모와 교사, 그리고 교우관계에서 특별한 곤란을 경험하지 않지만 학업, 성적, 진로와 관련된 고민이 많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익히고 현재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이들이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이다. 특히 자신의 외모, 성격, 능력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는 자신감의 결여와 정체성의 혼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이 유형의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로 지적된다.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 유형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자신이 의지할 만한 사람을 원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체성이란 발달상의 여러 동일시들로 이루어지는 자기(self)이다. 청소년기는 자기의 단편들이 분리되거나 새롭게 되거나 하나의 응집된 정체성으로 통합되는 시기이다. 이런 통합의 과정에서 동일시에 동반되는 강한 불안이 하나의 자기를 유지하는데 장애물이 된다(Breger, 1974). Breger (1974)는 불안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안전감을 추구하고 성장하려는 동기, 변화, 더 높은 수준의 통합을 추구하는 것을 유능감이라고 정의하였다. 2유형의 청소년들은 현재의 자신과 이상적인 자기, 그리고 미래의 기대들을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유능감의 상실로 인한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청소년기 정신발달이 불안과 유능감의 변증법적 발달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정체감이 주는 과잉위축, 현실도피, 극단주의의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Breger, 1974). 따라서 2유형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정체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긍정적인 측면, 즉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도록 조력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2유형의 청소년들 스스로도 갈망하듯이 안전감을 주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다. 실

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는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사회적 관계망이 크고 지지제공이 많을수록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이 감소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원으로서 또래, 가족, 교사 등을 활용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 청소년 개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간관계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청소년기의 발달적 변화를 이해하고 대인관계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홍상옥, 엄경순, 배옥현, 2003).

마지막으로 제 3유형은 정서적으로 혼란스럽고 마음이 편치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벗어나거나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심리가 강하다. 정서적 지원자를 찾는 것은 2유형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2유형이 신앙생활을 불필요한 것으로 지각한 것과 달리 3유형의 청소년들은 신앙생활에서 정서적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특히 1유형과 2유형의 청소년들이 가정환경에 특별한 불만이 없었던 것에 비해 3유형의 청소년들은 가족간의 불화와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또한 개인내적인 갈등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자신의 성격이나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고 적성과 진로문제로 고민한다. 앞서 보았던 2유형 역시 이러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두 유형에서 차이점은 3유형의 경우 자신의 부정적인 면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판단의 준거가 외부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을까 두려워하고 교사로부터 인정받길 원하며,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정체성 형성의 실패는 격리 불안의 복잡한 사회적 변형인 소외를 낳는다. 타인과 다른 이상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사회에 대한 일치감을 느끼지 못하고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분리된 소외불안을 경험한다. 특히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과도한 상실감을 갖는다(Breger, 1974; Jacques & Danis, 1997; Janna & Michael, 1995). 따라서 2유형의 청소년

을 위한 상담은 가정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다루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자아를 찾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Brian 등 (1999)의 연구에 의하면 과도한 일상적 스트레스의 누적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느낌을 주는데, 자신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것으로 귀인하며 비합리적 신념을 택하게 한다. 2유형의 청소년의 경우에도 자신의 개인적인 자질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이 정서 행동상의 문제와 연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고와 정서 그리고 행동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REBT 상담, 종교적 활동에의 참여, 인지재구조화 훈련,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의 참여 등을 통해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김미례, 2002; 홍석은, 2002; Brian, Mark, Patrick, 1999).

이상으로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세 가지 유형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상담자와 연구자들은 각 유형간의 유사점과 독특한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에 따른 상담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Q 방법론은 소 표본(small sample)을 대상으로 개인의 주관성을 탐색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부적응 문제의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양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 청소년들과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특성에서의 차이를 밝히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미례(2002). 고교생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REBT 집단상담의 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주(2001). 중, 고등학생의 학교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래, 이혜원(1995). 학습자들의 생활스트레스척도 개발. 교육연구논집, 1(12), 101-120.
- 김향림(2000).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건강문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흥규(1990). Q 방법론의 이해와 적용. 서울: 서강대언론문화연구소.
- 신현숙, 구본용(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9(1), 189-225.
- 윤소미(2002). 청소년의 스트레스, 귀인양식, 사건귀인이 무망감과 무망감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휘(2000). 고교생의 스트레스와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철, 이수연(2003). 가출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행동에 대한 상담학적 개입전략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1), 152-165.
- 홍석은(2002). 기독교 의식이 청소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상욱, 엄경순, 배옥현(2003). 현대가족에서의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139-155.
- Black, K. A. (2002). Associations between adolescent-mother and adolescent-best friend interactions. *Adolescence*, 37, 235-253.
- Breger, L. (1974). *From instinct to identity: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Prentice-Hal, Inc.

- Brian, L. P., Mark, D. S., & Patrick, M. W. (1999). Stress-buffering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 coping: A path analysis. *Adolescence*, 34(136), 715-734.
- Griffith, M. A. & Dubow, E. F. (1993). Adolescent coping with family, school, and peer stressors.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ugust 20-24.
- Jacques, D. L. & Danis, S. C. (1997). Economic hardship, family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distress: An evaluation of a stress-distress mediation model in mother-daughter and mother-son dyads. *Adolescence*, 32, 339-356.
- Janna, S. & Michael, F. S. (1995). There's a first time for everything: understanding adolescence. *Adolescence*, 30, 217-221.
- Jones, R. W. (1992). Gender specific differences in the perceived antecedents of academic stress. 1-12.
- Mailandt, W. (1998). Adolescent perception of workload and stress. *Guidance and Counseling*, 14(1), 19-22.
- Susan, M. S., Linda, L. C., & Douglas, A. K. (1996). Boredom, stress and social control in the daily activities of adolesce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8(4), 274-292.
- Thompson, C. L., & Rudolph, L. B. (2001). *Counseling children*(5th ed.). Thomson learning.

〈부록〉 Q-sample 및 각 유형별 Z-score

문 항	유형별 z점수		
	1	2	3
01.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해야 하니까 괴롭다.	0.9	0.9	1.3
02. 부모님이 나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주시면 좋겠다.	-1.7	-1.9	-1.6
03.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만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0.8	0.3	-0.7
04.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곤란한 신체적 결함이 있다.	-1.3	-0.4	0.3
05.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0.2	-1.4	-1.4
06. 나만의 자유시간을 누렸으면 좋겠다.	0.2	0.7	-0.4
07.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갖지 못할 때 화가 난다.	0.6	0.4	0.1
08. 내 적성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1.4	1.4	-1.8
09.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싶다.	1.5	-0.6	0.1
10. 예전보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고 신경이 예민해졌다.	-0.9	-2.0	-1.2
11. 화재, 교통사고, 건물붕괴, 가스폭발 등 각종 사고가 빈번해서 불안하다.	-0.0	-1.3	0.2
12.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고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	0.7	0.5	0.9
13. 부모님의 문제(불화, 이혼, 별거 등)로 집안이 편하지 못하다.	1.5	1.6	-0.9
14. 친구들로부터 바보취급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해서 속상하다.	-2.2	0.7	-1.4
15.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괴롭다.	1.0	0.7	1.2
16. 내 얼굴이나 외모에 불만이 있다.	0.4	1.1	0.1
17. 선생님이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실 때 화가 난다.	0.9	0.9	1.6
18. 갑작스런 사춘기 신체변화로 당황스럽다.	0.1	-0.8	0.5
19. 진로 계획에 있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0.7	0.0	-0.3
20. 신앙생활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이 많은 것 같다.	0.2	-0.6	-1.3
21. 충분히 잠을 자고 몸이 가뿐했으면 좋겠다.	1.7	1.3	0.2
22.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공간이 있어야 한다.	0.4	0.9	0.1
23.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시거나 발표를 시킬까봐 두렵다.	0.8	-0.1	-0.7
24.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이 좋게 지내고 대화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0.1	0.1	-1.1
25. 친구나 선배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한다.	0.6	1.6	1.6
26. 내 성격의 좋지 않은 부분을 고치고 싶다.	0.4	1.1	-0.1
27. 요즘 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적 욕구가 많아졌다.	0.4	0.4	1.6
28. 내 적성이나 진로문제를 함께 상담할 사람이 필요하다.	-0.4	0.2	0.8
29. 정부의 부정부패와 사회의 부조리가 심하다.	-1.0	-1.8	0.1
30.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좋지 않아 괴롭다.	-2.2	0.8	-1.4
31.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을 무조건 못하게 하거나 잔소리를 많이 하신다.	-0.4	-0.8	0.1
32. 이성 친구를 사귀거나 가깝게 지내고 싶다.	-1.2	-0.7	0.6

문 항	유형별 z점수		
	1	2	3
33.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앞으로의 삶의 목표가 불분명하다.	-0.5	-0.9	-0.6
34. 대학 안나온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은 사회분위기가 싫다.	0.0	0.4	0.3
35. 시험을 볼 때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6	0.1	-1.2
36. 부모님이 형제자매나 다른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0.3	0.1	1.1
37. 입시제도의 개혁이 오히려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다.	-1.3	-2.1	-0.8
38. 학교나 학원에서 과제를 조금만 내주면 좋겠다.	1.2	1.2	1.9
39. 집안이 경제사정이 어려워져(퇴직, 사업실패, 빚 등) 여러 면에서 힘들다.	-1.5	-1.2	-0.9
40. 선생님이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대하셨으면 좋겠다.	0.7	-0.6	1.2
41. 남들보다 능력이나 재능이 부족한 것 같아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있다.	0.3	-0.6	0.6
42. 교내생활에 대한 학교규정이 너무 엄격하고 강제적이어서 거부감이 든다.	-0.7	0.1	1.2

ABSTRACT

Stress Factors in Adolescent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Koo, Mee-Hyang*

The structure of stress was identified and measured by Q methodology. Subjects were 45 adolescent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Subjectivity of adolescents' stress was classified into 3 types by the QUANL program. The first type is "Give me liberty" where adolescents are stressful about situations which restrain a personal freedom of the will. The second type is "Where do I have to go?". The adolescents in this type lose confidence in one's own ability and feel identity crisis. The last type is "Be my emotional supporter" where adolescents need intimate relationship with family members and friends as they feel inferior to others.

Key Words :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stress, Qmethodology

투고일 : 10월 24일, 심사일 : 11월 30일, 심사완료일 : 12월 20일

*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onam University *Full-time Lecturer*